

첨단자동차 전문가들 광주로 몰려온다

국제그린카전시회 학술행사

5개국 300명 기술컨퍼런스

7~8일 DJ센터서 강연·토론

세계적인 첨단자동차 기술 전문가들이 광주로 몰려온다.

2016 국제그린카전시회 학술행사로 열리는 '국제첨단자동차기술컨퍼런스(ICAT 2016)'가 전남대 자동차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김대중컨벤션센터, KOTRA,

한국자동차공학회 주최로 오는 7일부터 이틀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ICAT 2016'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와 부품회사의 자동차 기술 발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광주지역 자동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학술대회다. 5개국 300여 명 등 자동차 기술 글로벌 전문가들이 첨단 자동차기술 발전과 흐름을 교류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에서 온 총 16명(해외 10, 국내 6)의 자동차 전문가들이 '자동차 기술의 창조적 혁신'을 주제로

로 파워 트레인, 자동차 경량화, 그린카와 IT분야에 대한 열띤 강연과 토론을 펼친다.

'ICAT 2016'은 현대자동차와 GM의 총회 신기술 발표를 비롯해 구두 발표 9건, 포스트션 25건 등 모두 36건의 세션을 통해 자동차 신기술의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독일 안톤 솔츠 교수의 '독일 그린카의 발전 동향 및 상용화 사례' 발표에 이어 일본 나고야대학의 테스노리 하라구치 교수가 '5개 대화면의 입체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에 의한 퍼스널 모빌리티 차량의 연구

가능성'에 대해 발표한다. LG화학의 최용석 부장은 '전기차량 배터리 시스템 시뮬레이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손경중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자동차 100만대 육성의 역점사업인 자동차산업밸리조성사업에 직접적인 기반과 논리 개발에 필요한 세계적인 자동차 기술의 흐름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기회"라며 "광주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교류되는 국내외의 자동차 신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자동차 생산도시 조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저소득층 청소년 홀로서기

'디딤씨앗통장' 후원자 모집

광주시-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씨앗통장 후원자를 모집한다.

양 기관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기 위한 기초수급가구아동의 디딤씨앗통장에 일정 금액을 후원해주는 '희망씨앗프로젝트'를 7월말까지 추진한다.

최근 시청 1층 시민숲에 희망씨앗프로젝트 홍보부스를 설치한데 이어 이달 중에 5개 자치구 청사에도 운영키로 하고, 기관 방문 활동과 SNS 등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후원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디딤씨앗통장은 보건복지부가 2007년 4월부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등 보호대상 아동의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까지 확대됐다.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중위소득 40% 소득수준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다. 희망씨앗프로젝트 참여 문의는 어린이재단(062-351-3513·4) /채희종기자 chae@



美 대학생들 U대회 현장답사 **광주U대회 1주년을 맞아 미국 제임스메디슨대 언론정보대학 PR 전공 대학생 15명과 인디애나대 학생 30여명은 지난 30일부터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등 주요 경기장을 방문하고 U대회 성공 개최 이야기와 홍보 노하우를 들었다.** <광주시 제공>

광산구 젊은 공직자 30명 '핵심인재 액션 러닝' 4개월

머리 맞대니 지역 현안 술술 풀리네

광산구가 10년 차 미만 공직자들이 팀을 이뤄 지역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핵심인재 액션 러닝 프로그램'을 운영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액션 러닝 프로그램은 조별로 과제를 설정해 해법을 찾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는 학습법이다.

지난 3월부터 가동된 제1기 5개팀 30여명은 100여일간 평균 20번의 회의를 가졌다. 다른 지역 10곳을 방문해 지역 현안과 관련된 모범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완성된 결과물들은 지난 28일 광산구청에서 열린 '핵심인재 액션러닝 과제 발표회'에서 선보였다.

광산구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팀에게 각각 국외·국내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업무와 부서가 다른 청년 공직자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뭉쳐 장기간 학습하고 활동하면서 만든 해법을 시범 실시하는 것은 일선 지자체에서 드문 사례"라며 "프로그램 활성화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원룸 이틀이 적인 재할용 수거함과 관급봉투 수거함을 직접 만들어 3

주간 운영한 결과 불법투기가 평소보다 80%가량 줄었다는 주민들의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나눔문화 확산을 주제로 한 '경국색팀'이 받았다. 이들은 1913송정역시장을 '나눔의 거리'로 만들었다. 가가 손님이 기부한 '별별나눔쿠폰'을 모아 일정 시기가 되면 업주가 어려운 이웃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나눔에는 1913송정역시장 내 17개 상점이 함께 했다.

또 '불치하문팀'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소형 개시대 설치, '미생나비팀'은 아파트 음식 나누기, '희희호호팀'은 경로당과 유치원의 자매결연을 결과물로 내놓았다.

광산구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팀에게 각각 국외·국내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업무와 부서가 다른 청년 공직자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뭉쳐 장기간 학습하고 활동하면서 만든 해법을 시범 실시하는 것은 일선 지자체에서 드문 사례"라며 "프로그램 활성화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원룸 이틀이 적인 재할용 수거함과 관급봉투 수거함을 직접 만들어 3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49회 행정혁신인상' 선정

김병규 사무관·박갑수 사무관·조민원 주무관

광주시는 '제49회 행정혁신인상' 수상자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김병규(55)사무관, 대중교통과 박갑수(51)사무관, 생태수질과 조민원(46)주무관을 선정했다.



김병규 사무관



박갑수 사무관



조민원 주무관

김병규 사무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주변 도심은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킹 거리축제인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을 창설·운영해 문화도시 광주 위상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4월 금남로 프린지 개막 시 시민, 국내외 관광객 등 3만여 명이 참여하고, 5월 5·18민주광장 프린지 개최시 관람객 1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민 공감 문화예술 활성화를 촉진했다.

박갑수 사무관은 교통카드 전국 호환 시행, 65세 이상 어른신과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무임교통카드 도입',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연간 30억원 이상의 운영적자 감소가 기대되는 등 시내버스 운영 업무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조민원 주무관은 하수처리시설 계획 및 공사, 전기·통신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1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 추진으로 연간 34억원의 도시가스 비용 절감 기대, 신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필요한 전력증설 공사비 18억원 절감 기대 등 예산절감 기대는 물론 관내 하수처리시설의 고효율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의 모든 정보 앱으로 만난다

市 '모바일 광주 앱' 오픈

휴대폰 무료 충전 행사도

광주시가 시민과 한걸음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개발해 온 모바일 광주 앱을 1일 오픈했다.

모바일 광주 앱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시정정보를 비롯해 교통, 문화, 관광, 안전 등 40여개의 각 분야별 정보를 모바일에서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모바일 앱 '바로 응답' 코너에서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하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 주변 정보' 서비스는 현재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에 주차장이나 화장실, 공공 와이파이 구역, 음식 맛집 등을 지도상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광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날씨, 대기 정보를 비롯한 대중교통, 도로소통 등 생활 필수정보와 시험, 입학, 일자리, 부동산 등 생활 경제

정보, 문화행사, 주요명소, 레저여가 등 생활 편의정보 등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스마트폰에서 터치 몇 번만 하면 해당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편리함을 더했다.

광주시는 '모바일 광주' 앱 오픈을 기념해 1일부터 시민이 많이 모이는 터미널과 송정역, 문화전당, 도서관 등 16개소에서 모바일 광주앱을 설치한 시민을 대상으로 휴대폰 보조 배터리 무료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모바일 광주 앱

숙박 (무인텔/콘도)

동업 / 투자 / 인수 하실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객실 52개
- 시세 / 감정가 - 60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11억 2500만원 낙찰
- 용 10억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가장임차인 / 허위 유치권 명도소송 진행중
- 명도 후 50억원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010-3605-5000